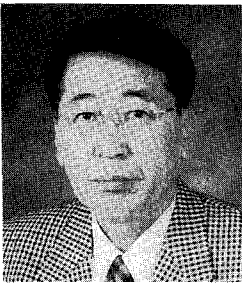


## 닭의 기분(氣分)



장 기 식

P&H consulting 대표 수의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다, 나쁘다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란 말은 스트레스(stress)의 양(量)이 아주 가볍다, 무겁다란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요사이 기(氣)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닭에게도 기분이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기(氣)란 눈에 보이는 물질도, 현상도 아니다. 더욱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동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병론(起病論)으로 본다면 적어도 기(氣)란 것이 균형 상태, 혹은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의 장(長), 단(短)에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인의 임상생활 동안 느껴온 바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온몸의 힘이 빠지고 울적해져서 입맛도 없어지고, 활동을 힘차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은 닭과는 달리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자기 스스로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헤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닭은 생존 조건이 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닭이 생존하는 장소의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닭 자체의 기분을 조절 해주지 않으면 닭 자신이 이를 조절하고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일어나는 지출과 손실은 전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지고 부담하

는 수밖에 없다.

본인은 가끔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일이 사양가 자신이 자신의 실수는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상황을 연출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소지가 있는가? 를 반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실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문제 해결의 중심부로 접근하는 방법과 시간 이 쉽고 짧은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잘못을 알아내는데 방법과 시간을 낭비해야되므로 의외로 해결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자기가 양계를 한 이래로 '이렇게 손실을 입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전에 일어난 사실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경우) 전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닌 타인(병아리공급자, 사료, 종사원 등)으로 돌려 때 황당함을 느낄 때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만큼 일어나는 손실은 사양가 본인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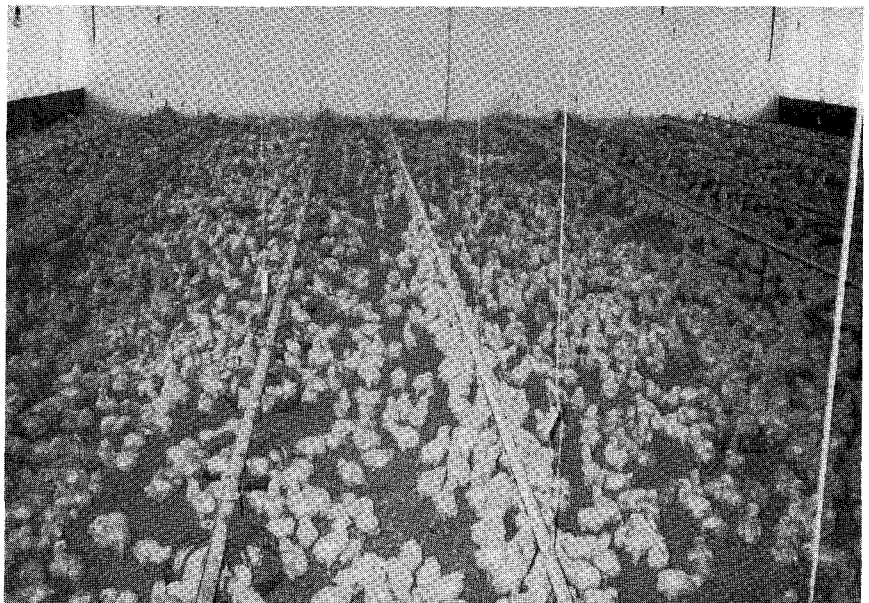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닭의 기분을 나쁘게 한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

스를 가하면 신체상태가 어떻게 빠지고 그로 인하여 내분비기관은 어떻게 변해서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이론적인 것은 배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기분(氣分)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기분이란 말 그대로 기(氣)의 나뉘(分)을 합쳐서 한 말이고- 좋다, 나쁘다란 말은 나뉘이 골고루 분산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합쳐져 응어리져 있느냐? 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기분에 관한 표현으로는 명사로는 기력, 생기, 원기, 활기 등이 있으며 동사로는 기가 넘치다, 기를 꺾다, 기가 질리다, 기가 나다, 기를 쓰다, 기가 막힐 것 같다, 영어로의 표현은 명사로는 spirits, energy, vitality, vigor 등이 있으며, 기가 왕성하다는 표현은 be vigorous[energetic] 로, 기가 부족하다는 be lacking in energy 혹은 be in low[poor] spirits로 표현한다.

기가 찬다, 기절한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등의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기분 좋다는 표현보다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의적으로든 아니면 타의적으로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가 찬다’란 말은 신체의 어느 특정 부위에 기가 모여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 부위에 기가 모이는 빈도수가 높으면 그 부위에는 언젠가는 건강상태를 잃고 병적인 상태로 서서히 전환되어 변성, 변형, 퇴행, 괴사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는 그 부위에 환부를 만들어 치료해 주지 않으면 폐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신체기관은 어느 부위든 필요한 일을 맡아서 해주지 않으면 이웃하는 기관이나 멀리 있는 기관이라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파괴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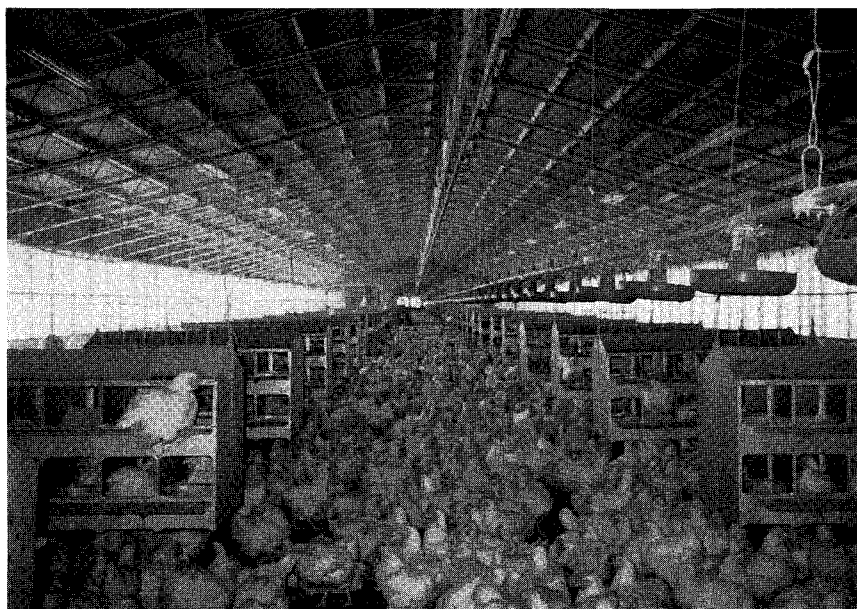
예를 들면 호흡기질병은 닭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온도, 습도, 계사 내 용적, 공기의 내용(품질) 등이 복합적으로 만족 할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한냉, 과온, 과습, 건조, 계사 내용적의 부족, 유해가스의 한계초과, 산소부족 등이 초래되면 닭은 기분이 좋지 않게 된다, 인간이라면 자기 스스로 악(-) 조건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 할 수 있지만 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소유주가 해소 시켜주지 못하면 그 결과 기(氣)가 비강으로부터 기낭에 이르기까지 차게 된다. 그럴 때 원인을 해소하여 기를 분산 시켜서 기분 좋은 상태로 전환 시켜 주지 못하면 기(氣)가 일차적으로 섬모에 모여 있다가 기력(氣力)을 잃게 되면 섬모 탈락이란 현상을

유발시키고 더욱 진행되면 섬모 탈락 후 그 부위에 출혈과 부종을 불러오고 이어서 발열과 삼출물이 흘러나오고 염증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염증성 반응을 유발한다. 이때 닭의 환경조건을 개선 시켜 주는 작업과 한계를 초월한 신체적 방어능력을 보조, 보강, 치료 해주지 않으면 이차적으로 대장균 등의 침입을 받아 만성 호흡기 질병이나 대장균증 등으로 이행하여 사육가 자신이 닭의 기분을 상하게 한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절(氣絶)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가 끊어진다는 말이다. 이 기절이란 말은 일시적이든 장시간이든 기가 신체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체는 기가 빠져나가 있을 동안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한다. 기절은 일시적인 기절과 장시간의 기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기절은 그 원인을 바로 해소해주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시간의 기절은 기가 끊어진 부위 및 시간이 어디, 얼마간 이냐?에 따라서 회복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닭이 이동을 할 때 간혹 순간적인 기절(순간적인 가사 상태)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때 기절을 하는 닭들은 거칠게 다룬다든가 혹은 케이지나 어리장에서 꺼내고 넣을 때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당혹감, 고도의 긴장 혹은 흥분상태, 놀람 등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끊어진 기에서 원상 회복되는 경우이다.

장시간의 기절은 하나의 예로서 어린 병아리시절의 불완전 탈수와 완전 탈수증에 빠져 있을 때 볼 수 있는데 특히 육계(산란계)병아리의 경우 종계가 신계인 경우 종란의 무게가



를 해서 공급을 하는 상관행(商慣行)이 병아리의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정착되어야 하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아쉬운 점은 사육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조건이므로 이런 악 조건은 병아리를 입추 하는 한 일년에도 몇 차례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

양관리를 자기가 조절 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다가 맞추어서 해 나가야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일정수준의 중량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종계의 체중 균일도가 낮을 때에는 병아리의 체중 균일도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때 난중에 따라서 분리하여 종란을 부화하지 않으면 부화 직후의 병아리의 키 높이는 난쟁이로부터 키다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 된다. 이럴 때 약추 선별을 하는데 아무리 힘을 들여도 개체별로 무게 측정을 하지 않고, 육안적으로 선별을 한 결과는 사육가 입장에서는 약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아리가 분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추의 정의가 일정 무게 이하의 병아리도 포함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병아리도 자원 절약 측면에서 음수 공급에 남다른 신경을 기울인다면 훌륭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병아리를 공급하는 종계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공급되는 병아리는 신계 병아리'이니 음수 공급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관심비용 만큼 감가

양관리를 자기가 조절 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다가 맞추어서 해 나가야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최초 일주일간의 사육 관리는 입추 후 도태까지 한 싸이클(cycle)의 양계사업상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간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관리는 물론이고 급이 급수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급이 관리는 비교적 나쁜 편은 아니나 급수에 관한 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비용이 더는 사료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비용이 들지 않는 급수에는 의외로 홀대(忽待)를 하는 경향이 허다하다. 모든 생명체는 음식을 먹지 않고는 며칠을 지낼 수 있어도 물(水分)은 하루를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세포 내, 외간 간격에 수분이 일정량 존재하지 않으면 전기적 이온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인하여 세포는 위축, 퇴행, 변성, 괴사의 숙명적인 길을 택하여 세포집단, 조직,

장기, 개체를 또다시 위축 변성 괴사란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 갈 수밖에 없다. 부분 탈수든 완전 탈수이든 병아리 자신에게는 기절(氣絶) 할 일이다. 물을 먹을 수 없으니 기가 차다 못하여 기절 상태에 빠지게 되어 옆으로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료통 근처에 갈 기력도 없어 삶을 포기하고 허둥 벉둥 거리다가 소유주를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고 마는 병아리를 관찰 하여보면 다리는 뼈다귀 위에 피부만 걸치고 가슴은 흉골에 피부만 입은 꼴이고 모이 주머니는 물을 먹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사료를 못 먹게 되어 공기 만 만져지는 불쌍한 모습으로 본인의 손바닥 위에서 또 한번의 사체 검안이란 거창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결론은, 원인으로 1, 병아리가 음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 했음. 2, 주급수기 이외에 보조 급수기가 최소한 100수당 1개 정도는 되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했음. 3, 주급수기는 일(-)자형 일 때에는 길이의 장, 단에 따라서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부족하였음. 4, 주급수기가 이스라엘 물통(platon급수기)의 배열이나 숫자 계산에 잘못이 있었음. 5, 주급수기, 보조급수기의 배열이나 숫자에는 이상이 없으나 높이가 맞지 않아 물을 섭취하지 못했음. 6, 병아리가 위치하고있는 최소한 반경 50cm 범위 내에 급이, 급수기가 설치되지 못 하였음 등으로 인한 폐사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병아리를 기절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이 폐사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상당부분 인정사료됨, 하고 나서면 어떤 사양가 분은 과거의 관습법을 내세워 상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인은 육종이 발전하면 환경 적응법

이런게 있는데 해박한 법률가를 만나면 귀하는 패소 할 것이니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후에는 본인의 주문(呪文)대로 닭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귀하의 노력에 상응한 대가가 환원 될 수 있는 사양관리 기법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나설 때 뭔가 는 뒷맛이 상큼 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순간 본인도 기(氣)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는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는지? 아니면 닭의 기분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방이 원망스러워 인지?

이런 예 말고도 기절하는 예는 무수히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닭을 키운다는 것은 직업이다. 직업에 충실하여야만 충실 한만큼의 과실(果實)을 우리는 수확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닭을 기분 좋게 하라는 것은 닭에게 아부(阿附)하라는 말은 아니다.

서두에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닭이 유지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을 소유주가 만들어 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2003년은 예견되는 불황이 우리의 기분을 밝게 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때일수록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정밀 사양 관리 기법만이 손실을 줄이고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양(羊)의 해에는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삼가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나가는 그래서 더 나은 발전적인 업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바람직한 우리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양계**